

홍콩 각료회의! 성공반 실패반



●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6차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반 실패반’으로 끝났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150개 회원국과 옵저버(참관국),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미 예견했던 바대로 완전히 타결 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약간의 진전은 보여 DDA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폐막일이었던 12월 18일 전체 회원국이 참가하는 공식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각 국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자는데 합의했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수, 보조금 감축 구간수, 개도국 우대조항 등 주요 쟁점 별로 약간의 진전을 보였는데, 이는 향후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협상의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이번 합의 내용 중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개도국 우대 조항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SP)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긴급수입제한(SSM)을 수입 가격 하락 및 물량급증의 경우에 모두 발동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우리는 개도국지위를 반드시 확보해 이러한 우대조항을 국내농산물 보호 장치로 활용해야 하겠다.

향후 전망

이번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통해 내년 7월 31일까지 회원국별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을 설정해 놓았다. 그러나 차기 회의를 어디서, 언제 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또 7월 31일이라는 시한은 내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합의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이전에 더욱 더 공세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소규모 고위급 회의가 주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소규모 회의가 언론과 인터넷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때문에 2007년 여름까지 DD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DDA 협상이 크게 지연 될 수 있다. 현재의 신속처리권한은 미 의회가 행정부에 국제무역협정에 관한 협상권한을 주어 협상하도록 하되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가·부결 권한만을 가질 뿐 협상 결과를 수정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2007년 7월에 만료된다. 미국은 이를 위해 EU와 여타 회원국들을 더욱 압박해 반드시 4월 30일 이내에 세부원칙을 타결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EU는 미국이 농업협상에서 지나치게 공세적인 반면 공산품 시장과 서비스협상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적절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소규모 고위급 협상에서 공산품·서비스와 농산물 간에 어떤 빅딜이 나올지가 DDA 협상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협상 쟁점별 주요 내용

〈시장접근 분야〉

- 관세감축을 위한 구간수는 4개로 합의
- 민감품목 대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 개도국은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SP)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품목 선정의 지표는 추후 합의
-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SSM)은 수입물량 급증과 수입가격 하락의 경우에 발동하되, 구체적 기준은 추후 합의

〈국내보조 분야〉

- 감축대상보조(AMS),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구간수를 3개로 합의
 - EU는 최상위, 미국·일본이 차상위, 여타 국가는 최하위에 배치
- AMS가 없는 개도국은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감축을 면제하고, 개도국을 위한 허용보조(Green Box) 요건 완화

〈수출경쟁 분야〉

- 수출보조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확정
-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적 관행을 규율하는 세부 원칙을 2006.4.30일까지 마련
- 개도국 수출물류비 등의 수출보조는 선진국 수출보조 완전철폐 이후 5년간 허용